

# 슐라이에르마허의 일반해석학

김 영 한\*

## 목 차

- |             |             |
|-------------|-------------|
| 1. 낭만주의 해석학 | 5. 심리주의적 해석 |
| 2. 해석학과 비판  | 6. 해석학과 변증법 |
| 3. 해석학적 착상  | 7. 평가       |
| 4. 문법적 해석   |             |

## 머 리 말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1805년 독일 할레(Halle)대학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1834년 죽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석학의 문제를 다루었다. 1809년 그는 베를린 대학에 신학교수로 초빙받았고 거기서도 8차례나 해석학에 관한 강의를 했다. 플라톤 번역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슐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에 관해 쓴 그의 성숙한 많은 원고들을 출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그가 예기치 않게 66세로 빠르게 별세한 것도 사유가 되겠으나 주요 이유로는 그가 자기의 기획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sup>

1809-10년에 행한 [일반해석학](Allgemeine Hermeneutik)은 최근 출판되었다.<sup>2)</sup>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해석학과 비판](Hermeneutik und Kritik)도 그가 생전에 출판한 것이 아

---

\*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기독교학대학원장

1) Jean Grondin,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che Hermeneutik, 1991, 89

2) F.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hrsg. von W. Virmond, in: Schleiermacher-Arciv I (1985), S. 1269-1310

니라 그의 제자인 뤼케(Friedrich Luecke)가 1838년 그가 별세한 후 자기 스승의 강의 노트에서 편집한 것이다.<sup>3)</sup> 1959년 김멀레(Heinz Kimmerte)는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에 관한 문헌들을 완전하게 재편집했다. 김멀레는 그의 편집본에서 학생들의 강의노트에 근거한 자료들을 배제하고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던 초기의 원고들과 난외주들, 그리고 슐라이에르마허 자신이 쓴 해석학의 모든 자료들을 연대기순으로 배열했다. 김멀레의 편집본으로 말미암아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연구에 있어서 초기의 해석학에 관한 노트로부터 후기의 해석학 강의록 원고에 이르기까지 해석학 사상의 발전 전체를 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현대해석학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고전 해석학의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이해를 敎義적 실용적 성경해석의 차원에서 철학적 인식론의 주제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아직 보편적으로 있지 않고 특수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뿐인 해석학에다 “이해의 기술”이라는 학문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이해의 기술로서의 해석학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특수한 해석학들만이 있다.”<sup>4)</sup> 그는 당시까지 해석학적으로 활용되었던 설명(Darlegung)의 기술을 해석학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 설명이란 하나의 수사학적 技術(eine rhetorische Kunst)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해석학이란 단지 수사학이 아니라 言說(eine Rede)을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해석학의 창시자인 슐라이에르마허가 당시의 텍스트 자귀에 제한된 전통 해석학에 어떻게 일반 해석학적 성격을 집어넣어 해석학을 일반 해석학으로 정초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 1. 낭만주의 해석학: 해석의 기술 강조

신학자로서 슐라이에르마허는 헬레니즘에서 유래하는 은유적 해석(allegorische Interpretation)을 반대했다. 은유적 해석은 비유나 다른 특별한 문학적 유형이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텍스트의 본래적인 의미 외에 비본래적인 의미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해석자의恣意에 문이

3)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1977, Frankfurt a. M.

4)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mit besonderer Beziehung auf das Neue Testament, ( aus Schleiermachers handschriftlichem Nachlasse und nachgeschriebenen Vorlesungen, hrsg. von F. Luecke, Berlin 1838),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Manfred Frank, Frankfurt 1977, 75

열려지게 되었다. 각 텍스트로부터 임의적인 것이 나오게 되었다. 교의학적 해석조차도 은유적 해석과 함께 기획되었다. 교의학적 해석(dogmatische Auslegung)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 슬라이에르마허는 해석의 기술성격을 강조한다. 해석이란 언어규칙들로부터 완전히 규정되지 않는 구성이다. 구성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규칙적용만이 아니라 재능에도 기초한다. 해석학이란 본문의 이해하기 어려운 귀절에만 관련되지 않고 본문의 내용과 언어와 관계한다. 그가 이해의 기술로서 추구하는 것은 단지 관찰의 집합이 아니었다.

당시 계몽주의 해석학은 번역이나 주석의 시도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얻어진 규칙이나 암시를 얻었다. 이러한 규칙은 이해하기 어려운 귀절을 해석하는데 관찰의 예들을 제시했다. 그래서 계몽주의 해석학은 이해의 일시적인 규율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몽주의 해석학은 해석학을 올바른 이해를 위한 관찰의 집합으로서만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이해를 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없었다. 슬라이에르마허는 이러한 일시적인 해석의 규칙이 아니라 본문에서 진정한 의미를 이끌어내는 이해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해기술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속에 구체화된 사상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해를 피하는 것이 해석학의 핵심 과제이다. 여기에는 감정입입(Einfuehlen)이 필요하며 문법의 차원을 넘어 심리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슬라이에르마허는 해석자는 언어지식과 역사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저자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석의 전제로서 본다.<sup>5)</sup> 해석자는 상응하는 언어지식을 획득하고 저자의 사고방식과 같은 삶의 정황에 가능한한 친숙되어야 한다. 슬라이에르마허는 여기서 해석자는 "저자가 자신을 이해했던 것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슬라이에르마허는 다음명제를 선언한다. "부분이란 전체에서만, 그리고 전체는 부분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해석과정은 텍스트 전체파악과 부분파악 사이의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텍스트를 자세히 읽기에는 해석자에게 전체를 개관해 주는 개략적 읽기(kursorische Lesung)가 선행한다.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은 문법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을 내포한다. 양자는 분리될 수 없다. 양자의 차이는 해석이 언어(Sprache)의 차원을 강조하느냐 저자(Verfasser)의 차원을 강조하느냐에 따른다.

5) ibid, 1977, 94

## 2. 해석학과 비판

슬라이에르마허는 전통적 해석학이 도외시한 비판적 사고를 도입한다. 그리하여 해석학적 사고에 해석학과 비판을 상호귀속 시킨다. 해석과 이해는 비판되어진다. “비판적인 행위는 해석학적 행위의 지속적인 동반자이다”(die kritische Taetigkeit ist die bestaendige Begleiterin der hermeneutischen).<sup>6)</sup> 비판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판이란 기계적인 오류에 대한 비판이거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야기되는 오류에 대한 비판이다. 이 두 경우에 텍스트에 오류가 있다는 추측이 깔려 있다. 비판자체는 이러한 오류를 인식하고 본래적인 텍스트를 다시 만들어 내는 과제를 지닌다.

의심의 계기는 텍스트 안에 놓여 있는 의미모순이나 언어지식의 근거에서 발생한다. 언어지식은 특히 상응하는 저자와의 친숙성 또는 그 시대의 텍스트와의 친숙성에서 나온다. 기계적인 오류는 자유로운 행위에서 의도적으로 유래한 오류에 대립된다. 기계적인 오류는 복사자나 인쇄자들에게 나타난다. 의도적인 오류는 텍스트 안에서 의식적으로 수행된 변경이다. 오류들은 고귀한 의도, 특히 의도되는 불명료나 오류를 제거하는 의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오류들은 철학적 반대자가 적대자의 인용을 가져온다면 나쁜 의도로 되돌려진다.

슬라이에르마허는 비판을 텍스트비판의 의미에서 본래적인 텍스트의 탐구(Ermittlung eines autenthischen Textes)로 이해한다. 여기서는 우위적인 질문이란 저자가 본래적으로 스스로 썼거나 말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을 넘어서 해석 자체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해 음미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슬라이에르마허는 이것을 교리적 비판(doktrinale Kritik)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작품이란 이념을 전제하고 이념을 좋게 또는 나쁘게 실현하는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문과 예술의 분야에서 이러한 사고는 양식비판(Gattungskritik)으로 나아간다.<sup>7)</sup> 교리적인 비판은 주로 텍스트비판(Textkritik)인 문헌비판(philologische Kritik)과는 대립된다.

6)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1977, 353

7) Schleiermacher, op. cit, 1977, 244

### 3. 해석학적 착상: 일반 해석학

슐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학으로 발전시킨다. 해석학이란 문헌학의 분야로서 “이해의 기술학”(Kunstlehre des Verstehens)이다. 해석학이란 다른 사람의 말, 특히 문서적으로 고정된 말 또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술이다.<sup>8)</sup> 말의 이해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상호소통의 어려움이 야기하면 이해는 규칙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석학이다. 이해는 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기술적 이해, 다시 말하면 텍스트 해석이 된다.<sup>9)</sup> 주석이나 해석은 따라서 규칙에 입각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해석방식이다. 이 규칙은 이해의 어려움을 피하고 가능한대로 어려움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슐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의 두가지 실천방식을 구분한다. 하나는 “좀 느슨한 실천”(laxere Praxis)과 “좀 엄격한 실천”(strengere Praxis)이다. 전자는 이해란 스스로 야기하고 오해는 피해야한다는 부정적인 목적을 갖는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것을 명료치 않은 구절을 밝혀내기 위해 지침을 제시하는 고전적인 字句해석학(Stellenhermeneutik)으로 본다. 이것은 전통해석학의 관점이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전통해석학을 특수해석학으로서 보고 다음같이 평가한다. “특수해석학은 관찰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성없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의 규칙들이 의존하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 활동이다”.<sup>10)</sup> 여기서는 기술없는 순수 직관적인 오성이 작용한다. 이해는 정상적인 전개방식에 있어서 기술이 없으며 그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즉 모순에 부딪칠 때까지 모든 것은 바르게 잘 이해된다. 해석학이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필요하다. 이해가 잘되는 것은 일차적이고 자연적이며, 오해하는 것은 특별한 해석학적 도움이 필요시되는 예외경우이다.

따라서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은 오해를 근본상태로서 전제한다. 이해하고자 시도함으로부터 해석자는 가능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석학의 일이란 이해가 불확실하게 되는 곳에서가 아니라 言說(Rede)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작에서 출발한다”.<sup>11)</sup> “좀 엄격한 실천”이란 슐

8)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hrsg. u. eigel. von M. Frank, Frankfurt a. M 1977, 75

9) ibid, 91

10)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영어번역 Hermeneutics: The Handwritten Manuscripts, Scholar Press, 1977, 95

11)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1272

라이에르마허가 해석학과 더불어 열고자 하는 분야이다. 여기서 보편해석학이다. “오해는 스스로 야기하며 이해는 모든 점에 있어서 원해져야하며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슐라이에르마허는 더 엄격한 실천과 더불어 이해의 차원을 보편화하고자 한다. 이해의 보편적인 우위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해의 요소는 사실로 보편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가 성공한 곳에서도 오해의 잔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sup>13)</sup> 그러나 이해의 技術은 본문 종류에 관계없이 법률문서, 종교경전, 문학작품 등에 모든 본문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의 일반해석학의 착상이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해의 근본행위를 추후구성(Nachkonstruktion)으로 이해한다. 하나의 언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치 내가 言說者인 것처럼 언설을 그것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구성해야 한다.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실로 가져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구성되어지는 저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의미이다. 여기서 “언설을 먼저 저자와 같이 그리고 다음에는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한다”(die Rede zuerst ebensogut und dann besser zu verstehen als ihr Urheber)라는 유명한 공식이 나온다.<sup>14)</sup> 더 좋은 이해의 목표는 무한한 과제이다. 이것은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슐라이에르마허에 따르면 두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법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주의적 해석이다. 모든 말은 “언어와 話者의 쏘 사고”에 관계한다.<sup>15)</sup> 문법적 해석은 말이 언어 속으로 얽혀있음을 계산하고 있으며, 심리주의적 해석은 말이 그의 사고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다. 두 해석은 전달의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문헌적인 텍스트에 있어서는 저자는 취급되는 사실을 위하여 아주 배경으로 가게된다. 여기서 문법적 해석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소설과 같은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심리적 해석이 중요하다. 텍스트 해석은 문법적 계기와 심리적 계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자가 객관적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주관적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 두가지 해석의 계기의 특성을 언어에 의하여 매개함으로써 실증적인 경험과학과 선험적인

12)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92

13) F. Schleiermacher, Ueber den Begriff der Hermeneutik,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328

14)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94, 104

15) ibid, 77

사변철학의 특성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심리적 해석이 문법적 해석보다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4.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은 해석학의 “문법적 차원”(die grammatische Seite)이다. 이것은 언어를 다룬다.<sup>16)</sup> 언어는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의 총체성에서 나오는 단면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먼저 주어진 구문론과 사용에 따른다. 그러므로 언어는 개인차원을 넘어선다. 문법적 해석은 표현을 텍스트에 놓여있는 언어의 총체성 연관에서 해명한다. 이것은 언어의 문맥에서 말해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슬라이에르마허는 문법적 해석을 위하여 44개의 규칙을 발전시키나 다음 두가지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주어진 본문에서 어떤 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정은 저자나 그 본래의 독자에게 공통적인 언어의 용법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up>17)</sup> 둘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주어진 구절에서 각 단어는 그 문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sup>18)</sup> 첫째 규칙은 공통언어에 관한 것이며, 둘째 규칙은 언어 맥락에 관한 것이다. 슬라이에르마허는 “이 두가지 규칙이 문법적 해석의 전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첫째 규칙은 공통적인 언어의 파악이다. 言說(Rede)의 부분은 저자의 언어영역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제란 언어로부터 언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Die Aufgabe ist, aus der Sprache den Sinn einer Rede zu verstehen).<sup>19)</sup> 이해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언어는 이해의 수단이며 사고의 매개물이다. 언어 없이는 사고할 수 없다.

“해석학에 있어서 전제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언어이다”(Alles Vorauszusetzende in der Hermeneutik ist nur Sprache“).<sup>20)</sup> 성경의 해석에 종사하는 고문헌학자나 신학자들에게 이 첫째규칙이 큰 비중을 갖는다. 저자와 원래적인 청중의 공통적인 언어영역도 중요하다. 언설은 공통적인 언어에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16)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S. 1276

17) Schleiermacher, Hermeneutics, 117

18) ibid., 127

19) E.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1276

20) Schleiermacher, Hermeneutik, hrsg. von H. Kimmerle, Heidelberg 1959, S. 38

둘째 규칙은 언어적 맥락의 파악이다. 단어의 의미는 언어환경에서 형성되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진다. 여기서는 어떤 처소에서 언설부분의 중요한 가치가 발견된다.

“해석학에서 전제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언어이다. 다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들은 거기에 속하는바 발견되는 모든 것은 언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sup>21)</sup>

술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의 태두리 안에서 언어에 대해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언설이란 사고의 표현이다. 그것은 사고의 외적 차원이다.<sup>22)</sup> 언어가 언설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모든 언설은 언어를 전제한다. 언어는 모든 개인의 사고를 제약한다. 술라이에르마허에 의하면 우리는 언어에 나타나는 생각만을 파악할 수 있다. 언어는 언어행위, 言說(Rede) 속에서 존재한다. 언어는 개인화자의 언어능력에 의존한다. 그런데도 언설은 단순히 화자의 창조만이 아니라 문법에 얽매인다.

술라이에르마허에 의하면 언어는 어떤 개별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것, 동일한 것을 설명한다. 반복되는 자극에 어떤 공통적인 것이 나타날 때 단어가 생긴다. 개별적인 상(像)에 어떤 일반적인 것이 나타날 때 도식(Schema)이 야기한다. 개별적인 상은 동시에 한 종류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직관의 종류인 도식들(Schemata)은 결국 단어 속에서 확고해진다. 단어자체는 어떤 도식적인 것(etwas Schemenhaftes)을 보유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신축적이다. 귀납적인 과정과 연역적인 과정은 서로 얽혀서 개념적인 체계를 이루고 용어적으로 확정된다. 문법적 해석은 의미파악을 위하여 비교방법(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한다.

술라이에르마허는 “개별적인 의미들은 연합하여 비교함으로써 내적 통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자는 저자가 자신을 이해한 것보다 더 잘 그를 이해 할 정도로 그가 사용한 언어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자가 사용한 언어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술라이에르마허는 문법적 해석을 위해서 여러 개의 표준과 규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석학적 규칙의 적용 자체에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sup>23)</sup> 그리하여 술라이에르마허는 옛날 해석학 전통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귀절을 그것의 맥락에서 해명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적용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했다.<sup>24)</sup>

21)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hrsg. u. eigel. von M. Frank, Frankfurt a. M. 1977, 185

22) ibid, 1977, 76

23) Hermeneutik und Kritik, 81, 360

24) Jean Grondin, op. cit., 94



문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슐라이에르마허가 언어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발전시켜서 그것을 해석학으로 끌어 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학적 문법의 차원을 열었다는 것이다.<sup>25)</sup> 그러나 해석학은 문법적 해석에 끝나지 않는다. 1960년대 일어난 구조주의(Strukturalismus)는 "오로지 문법"(nur Grammatik)만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해석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 차원을 무시했다. 해석학은 문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 5. 심리주의적 해석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은 심리적 차원에서는 저자의 마음으로 이입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 해석"(technische Interpretation)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이란 저자가 그의 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특별한 技術(besondere Kunst)을 말한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 어감과 어조이다. 기술적 이해는 말이나 글에 나타난 이러한 저자의 심리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적 해석은 저자의 언어구성의 특성과 문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법적 해석이 취급하는 언어의 순수문장학적인 측면은 언어가 본래 진술하고자 하는 저자 심리와 의도로 넘어간다.

이러한 견해는 저자에 대한 개인주의적 파악, 다시 말하면, 주관에 고정된 파악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의 의미를 중요시해야 한다. 저자에게는 관념론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자아, 존엄과 자율성, 자유와 자발성에 대한 어떤 것이 부착되어 있다. 저자의 작품은 그의 행위와 그의 창조로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작품을 저자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의 이해(Verstehen des Geistes)가 수행된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러한 해석을 심리주의적 해석(Psychologische Auslegung)이라고 한다.<sup>26)</sup>

슐라이에르마허는 후기에 있어서 저자의 삶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해석을 기술적인 해석과 심리주의적 해석으로 세분하여 발전시켰다. 심리주의적 해석은 저자의 삶 전체로부터 사상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심리주의적 해석은 작품이 저자의 창조물이긴 하나 심리적 원천을 넘어서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 빛나게 된다. 훗날이 심리주의를 비판한 것 같이 생산적 행위와 지향적 내용을

25) Hans Ineichen, Philosophische Hermeneutik, 1991, 126

26) H. Birus, Schleiermachers Begriff der "Technischen Interpretation", in: Schleiermacher-Archiv I (1985), 591-600

혼동해서는 안된다. 심리주의적 해석은 저자의 근본견해로 되돌아 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품이 그것의 발생과 저작과정으로부터 설명되도록 한다. 여기에 豫感(Divination)이 작용한다. 예감이란 신적인 영감을 말하지 않고 추측의 과정(ein Vorgang des Erratens)이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추정을 말한다. 해석자는 저자의 관찰방식에 정위하여 거기로부터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 해석자는 저자의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저자의 작품들과 비교함으로써 해석을 한다. 여기서 예감은 해석가설 형성(Bildung von Auslegungshypothesen)의 수단 역할을 한다.

슬라이에르마허는 말해지거나 쓰여진 말 배후에는 해석의 본래적인 의도를 형성하는 사상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단어 속에서만 알려진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슬라이에르마허는 항상 해석학에 있어서 예감적인 이해(das divinatorische Verstehen)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해석학의 역사과정에 있어서 심리주의적 해석, 즉 텍스트의 이해를 그것의 산출과정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이해하는 사고는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의 언어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의 일반 해석학은 후기에는 저자의 주체성에 강조점을 두는 심리주의적 해석학으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후기의 해석학은 본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저자의 본래의도(originale Intention)의 정신과정을 재구성하는 심리학이 된다. 이러한 심리주의적 해석은 문법적 해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기초 위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특히 예감을 해석가설 형성의 수단으로 관찰하게 될 때 심리주의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예감적인 이해의 전체는 모든 개체성은 보편적인 삶의 표현이며 각 사람은 타인과 공통적인 삶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체험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해석자는 저자의 내면적 삶을 예감할 수 있다.<sup>27)</sup>

## 6. 해석학과 변증법

슬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적 사고에 대화적 지평을 도입했다. 그의 해석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해석학이 갖는 변증법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변증법(Dialektik)이란 대화적인 지평(dialogischer Horizont)을 말한다. 변증법이란 슬라이에르마허에 있어서 이

27) Jack Forstman, A Romantic Triangle (Missola: Scholar Press, 1977), 101

해소통의 기술론(eine Kunstlehre des Sichverstaendigens)이다. 변증법의 필연성은 인간에게 온전한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인간의 사고에는 언제 어디서나 논쟁의 재료가 무한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논쟁에서 벗어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호간에 대화를 해야한다.<sup>28)</sup>

항상 원리적으로 오류 속에 처해진 개인은 타자와의 대화와 생각의 교환의 길에서만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해의 기술인 해석학은 이러한 대화적인 지식추구에 참여한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와 대화해서 텍스트의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의 배후로 와야만 한다.<sup>29)</sup> 해석학은 대화적 기반에 근거한다.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텍스트와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며 텍스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텍스트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석은 순수히 쓰여진 것을 넘어서서 글월 사이를 읽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술은 대화와 비슷하다. 모든 쓰여진 단어는 그 자체에 있어서 텍스트가 다른 정신과 수행하고자 하는 대화의 제공이다. 그러므로 슐라이에르마허는 “문헌 해석자에게 더 의미있는 대화의 해석(die Auslegung des bedeutsameren Gespraechs )을 하도록” 촉구한다.<sup>30)</sup>

해석학적 사고란 바로 문법적인 해석과 심리주의적 해석의 상호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문법적인 해석과 심리주의적 해석의) 두 작용들은 실제 적용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규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양자는 각기 그 자체의 특별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sup>31)</sup> 슐라이에르마허는 실제적인 이해란 문법적인 해석과 심리주의적 해석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것이 해석학이 지닌 변증법적 구조이다. 본문이 문법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심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심리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석자가 문법적 해석을 등한시하고 심리적 해석만을 강조하면 그 해석은 환상적이 되어 버린다. 해석자가 언어 맥락만을 강조하고 저자의 언어수식 능력을 등한시하면 오해를 야기한다.

슐라이에르마허는 따라서 해석의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양자의 상호보충적인 작용인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한다. 이것이 해석학적 사고의 변증법이다. 양자는

28) F. Schleiermacher, Dialektik, hrsg. von R. Odebrecht, Leipzig 1942, # 1.5. ( Vgl. den Auszug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419

29) Ueber den Begriff der Hermeneutik,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315-6

30) Ueber den Begriff der Hermeneutik,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316

31) Schleiermacher, Hermeneutics, 69

상호보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해를 산출시킨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사고에 있어서 이러한 서로의 상호관계는 바로 해석학적 순환구조이다. 이 해석학적 순환구조는 이해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모든 이해행위에 작용한다. 슐라이에르마허는 그의 해석학적 순환구조를 이러한 대화적인 테두리 안에 위치시킨다. 해석학적 순환구조는 전체와 부분의 순환관계, 즉 전체는 부분으로부터, 부분은 전체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해석학적 개념의 두가지 측면에서 규정된다. 문법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따르면 개별적인 것이 전체로부터 설명된다. 이해란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그리고 부분으로부터 전체에로의 반복적인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는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전체는 개별적인 것이 생겨 나오는 문학 장르(*die literarische Gattung*)이다. 심리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따르면 개별적인 것(귀절, 작품)은 저자의 행위로서 보여지고 저자 삶의 전체로부터 설명된다.<sup>32)</sup>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은 해석학적 순환구조를 개인적인 삶의 총체성으로 제한시킨다. 그리하여 언어적인 것을 내적 사상의 유출로서 영혼의 의사소통의 시도로서 이해하였다.

## 7. 평 가

정신과학과 해석학의 역사에 있어서 슐라이에르마허 해석학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주의적 해석의 공헌이다. 이 해석을 통하여 여태까지의 문법위주의 전통해석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해석의 두가지 차원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심리주의적 해석에 더 우위를 두었다.<sup>33)</sup> 1829년에 행한 그의 아카데미 강연은 명백히 외적인 언어는 저자의 내면적인 사고로 되돌아감으로써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해석은 작품을 저자의 생동적인 행위로서 추후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석학의 과제란 저자의 구성하는 행위의 전 내적 과정을 가장 완전하게 추후구성하는 데 있다.”<sup>34)</sup> 슐라이에르마허는 외적인 언어를 내적 사고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로한 심리주의적 해석의 의도는 순수문법적 차원의 쉬운 독단주의를 깨뜨리고 단어의 정신으

32) Ueber den Begriff der Hermeneutik,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335

33) M. Potepa, Hermeneutik und Dialektik bei Schleiermacher, in :Schleiermacher-archiv 1 (1985), 494, 그리고 Grondin, op. cit. 95

34) Ueber den Begriff der Hermeneutik,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321

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언어를 해석학의 주제로 다루었다. 해석학이란 언설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서 언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슐라이에르마허의 착상은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가다머는 해석학을 언어존재론으로 전개하였다. 가다머는 “사실의 이해”(Verstaendnis der Sachen)와 “텍스트의 이해”(Verstaendnis des Textes)를 구분한다. 사실의 이해란 텍스트에서 말해지는 것이고 텍스트의 이해란 저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sup>35)</sup>

셋째, 해석학을 모든 문헌에 해석의 규칙을 제시하는 일반해석학으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일반해석학이란 단지 주어진 본문을 해석해야할 제한된 영역에서만 타당한 특수해석학이 아니라 모든 본문과 대화에 대하여 이해기술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의 일반해석학이다. 그리하여 해석학은 그에게 와서 단지 본문 오해를 피하기 위한 훈련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와 대화를 이해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해석학은 더 이상 성경이나 법전을 해석하는 특수한 영역에서 벗어나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학문이 된다.

넷째, 성경적 해석학의 고유한 신학적 해석의 방법을 거부했다. 그는 모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의 기술학으로 해석학을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해석학의 확립이 과제였다. 그는 신학적 해석학의 독특한 영역을 거부했다. 그는 성경을 위한 특별해석학이나 계시적 언어를 거부했다. 성경의 언어조차도 독자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슐라이에르마허는 성경의 영감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성령은 해석의 규칙에 복종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신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sup>36)</sup> 1832년 경에 쓴 난외주에 슐라이에르마허는 성경영감과 성경해석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음 속으로의 주입으로서의 영감은 해석작업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해석학의 목적은 성경의 경우도 모든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독자들이 그 본문들을 이해했던 것과 같이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은 해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약성경의 영감 때문에 특별해석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복잡한 언어용법 때문에 특별해석학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특별해석학은 일반해석학에 연관되어 있다.”<sup>37)</sup>

슐라이에르마허는 그의 전 사상의 발전을 통해서 종교개혁적인 성경의 영감을 위한 신

35)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1965, 180, 280

36) Schleiermacher, Hermeneutics, 67-68

37) ibid., 216

학적 해석학을 거부했다. 그리고 성경해석조차도 일반 종교 텍스트 해석의 범주에 넣으면서 보편해석학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자와 해석자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성이 보편해석학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문법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이 보편해석학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그대로 성경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전통 교회와 신학자들이 사용한 성령의 조명에 입각한 성경해석을 거부했다.

슬라이에르마허는 그뒤에 오는 딜타이, 하이데거와 가다머에 이르는 현대의 철학적 해석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철학적 영역에서는 현대철학적 해석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sup>38)</sup> 그러나 신학적 해석학의 고유한 방법을 거부하고 성경해석을 일반 해석학적 사고 안에 해소시키는 그의 사고는 신학계에서는 볼트만을 통하여 비신화론화의 프로그램 제시하게 되는 바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른다.

## 맺 음 말

슬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로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석학을 이해의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전통적 해석학이 도외시한 감정입이라는 심리주의적 차원을 도입했다. 해석학은 말하는 수사학적 기술이 아니라 저자의 심리적 정신적 과정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학의 목표는 추후체험(Nacherleben)을 통하여 텍스트를 기술한 저자의 정신적 삶에 접근하여 그것을 재구성하는데 있다. 슬라이에르마허는 해석학에 비판적 사고를 도입했다. 그의 일반적 해석학이란 해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해석학이다. 해석과 비판은 상호귀속한다.

그의 일반해석학은 문법적 해석과 심리주의적 해석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언어를 언어사용의 총체성으로부터 관찰하고 후자는 언어를 내면의 표현으로 관찰한다. 그는 해석학이 갖는 대화의 성격을 강조한다.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와 대화하는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해석학의 변증법적 성격이

38) Claude Welch, Protestant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Vol. 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p. 85

있다.

그의 일반해석학의 착상에 따르면 **聖 해석학(hermeneutica sacra)**과 **俗 해석학(hermeneutica profana)** 사이의 구분은 철폐된다. 그가 비록 신학자로서 주로 성경해석의 문제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해석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텍스트에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술라이에르마허는 전통 해석학을 종교적 영역에서 벗어난 일반해석학으로 전개했다. 그는 일반 해석학의 착상에 따라서 신학적 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의 영역적인 차이를 철폐함으로써 신학적 해석학을 철학적 해석학으로 세속화 시켰다. 그의 견해는 볼트만에 의하여 강하게 지지되었다. 오늘날 리피르는 일반 해석학의 영역에서 볼트만 해석학의 사고가 너무나 합리성에 치우치고 신화나 상징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하고 신성한 것의 해석학을 복원시킴으로서 술라이에르마허의 사고를 수정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Jean Grondin,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che Hermeneutik, 1991
- F.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hrsg. von W. Virmond, in: Schleiermacher-Arciv I (1985)
-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mit besonderer Beziehung auf das Neue Testament, ( aus Schleiermachers handschriftlichem Nachlasse und nachgeschriebenen Vorlesungen, hrsg. von F. Luecke, Berlin 1838), in: Hermeneutik und Kritik, hrsg. Manfred Frank, Frankfurt 1977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hrsg. von M. Frank, 1977, Frankfurt a. M.
-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hrsg. u. eigel. von M. Frank, Frankfurt a. M 1977,
-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von 1809/10, 1272
- Schleiermacher, Hermeneutik, hrsg. von H. Kimmmerle, Heidelberg 1959
- H. Birus, Schleiermachers Begriff der "Technischen Interpretation", in: Schleiermacher-Archiv I (1985)
- Jack Forstman, A Romantic Triangle (Missola: Scholar Press, 1977)
- F. Schleiermacher, Dialektik, hrsg. von R. Odebrecht, Leipzig 1942,
- M. Potepa, Hermeneutik und Dialektik bei Schleiermacher, in :Schleiermacher-archiv 1 (1985)
-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1965
- Claude Welch, Protestant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Vol. 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한국해석학회, 「해석과 이해」, 지평문화사, 1996.
- 한국해석학회, 「해석학은 무엇인가」, 지평문화사, 1995.
- 한국해석학회, 「현대 해석학의 제문제」, 지평문화사, 1997.
- 한국해석학회, 「후기 하이데거와 자유현상학」, 지평문화사, 1997.
- Pöggeler, Otto, 박순영 역, 「해석학의 철학」, 서광사, 1972.
- 강돈구, "해석학적 순환의 인식론적 구조:Schleiermacher와 Gadamer", 「해석학과 사회철학의 제문제」, 일월서각, 1990. 6.



## Abstract

### Schleiermacher's general hermeneutics

Kim, Yung Han

As a founder of modern hermeneutics Schleiermacher not only developed the hermeneutics as a technique of understanding, but also it as a science of understanding. His general hermeneutics is to b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the grammatical and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The former observes the languages from the totality of language use, the latter does it as an expression of the inward. The hermeneutics is not a rhetorical technique, but to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mental process of auth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hermeneutics is to approach and reconstruct the mental life of the author who has described the text through the *Nacherleben*.

The hermeneutics which is a technique of understanding participates in the exploring the dialogical knowledg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xt, one should come behind what the words of text describe directly in the dialogue with the text. Herein consists the dialectical character of hermeneutics. The dialectics is a theory of technique of communication. Schleiermacher lets in his hermeneutical thinking the hermeneutics and criticism belong to each other.

The evaluation of his hermeneutics is as follows: Firstly, he tried to go beyond the limits of the grammar-oriented traditional hermeneutics

Secondly, he dealt with the language as a theme of hermeneutics. His idea appeared completely in the [*Wahrheit und Methode*] of Gadamer. Gadamer developed the hermeneutics as an ontology of language.

Thirdly, he developed the hermeneutics as general hermeneutics to suggest the rules of interpretation to all texts. He initiated the general hermeneutics by abolish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hermeneutica sacra* and *hermeneutica profana*. As a theologian he dealt mainly with the problems of biblical interpretation, however, this theory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handled all the text, whatever their contents may be.

Fourth, he denied the theological interpretative method of biblical hermeneutics. He secularized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into the philosophical one, by abolishing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hermeneutics. His view is strongly supported by Rudolf Bultmann. Today, Paul Ricoeur is revising the thought of Schleiermacher by rehabilitating the hermeneutics of the sacred, critising that the thinking of Bultmann is too much rational, neglecting the myths and symbols.